

부산불교련 ‘사단법인’으로 변신

부산시내 31개 종단, 1300여개 사찰을 아우르는 연합체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스님)가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80년 5월 창립이후 26년만의 대변신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지난해 ‘법인설립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검토 등의 준비에 들어간 부산불교연합회는 빠르면 1월 중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20~30명 선의 이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1300여 개의 사찰과 2100명이 넘는 스님들의 연합체이다 보니 법인 설립 준비도 만만치 않다. 부산불교의 대표성을 잃지 않으면서 종단이나 사찰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팔고루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점차적으로 기존 부산불교연합회 이사들을 사단법인 이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등록 완료... 회원제 운영방침 ‘주목’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행사기획단 구성 홈페이지 통해 홍보·참여폭 최대화

사단법인 설립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회원제 운영이다. 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사찰을 중심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회원 우선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회비납부, 행사 동참 등의 의무를 다 한 만큼 주인으로 대접받게 함으로써, 사찰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는 부산불교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회원제 운영은 부산불교연합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으로 활동하는 사찰을 확보하는 일로, 부산불교연합회의 결속력과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

은다. 우선 3년 안에 500개의 회원 사찰 확보가 목표다. 이로써 확보된 기본 재정으로 규모 있고 계획성 있는 설립과 사업 계획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단법인설립이 완료되는대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원사찰의 복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게 된다.

특히 부산불교연합회는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3월 중으로 홈페이지(www.bba.or.kr)도 개설한다. 홈페이지는 국적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봉축 캐치프레이즈 공모, 행사 아이디어 공모 등 열린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주최해온 봉축 행사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팔관회 등의 연중행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연구기획단 회의를 상시화 한다. 매월 한차례 회의를 행사뿐 아니라 부산불교 전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행사에 내실을 다지고 부산불교의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산불교연합회 법인설립 소위원회를 꾸려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사무총장 범산 스님은 “그것이 바뀌면 내용물도 달라지는 것처럼 사단법인 설립으로 부산불교연합회의 내실을 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1)867-050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놀며 배우며 행복 찾아요”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 금정청소년수련관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이다.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의 풍토 속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 그에 대한 해법을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로 찾아내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재)범어청소년동네에서 운영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이다. 1월 10일, 방학 중인데도 수련관 곳곳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하에는 청소년들이 재료 준비, 요리, 판매까지 도맡아서 창업한 청소년스네이크 ‘폼’이 성업 중이고, 수련관 뒷

에 버금가는 알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기를 모았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공과목과 함께 댄스, 연극, 수화, POP(에어 글씨쓰기), 리본 공예 등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아이들은 수련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생활에 쫓기는 부모님을 대신

방학 중에도 수련관은 북적... 상담코너 인기

방과후 아카데미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력

백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벽화로 꾸며져 있다. 아이들이 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선 18세 청소년들이 언제든 참여해 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도교사를 뽑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다. 모두 청소년들의 주인이라는 방증이다.

지난해에는 범어사청소년동네가 운영한지 1년 만에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를 개발, 판매하는 ‘캐릭터 개판지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전국 46개 기관 중 부산에선 유일한 성과였다.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원

해 저녁을 챙겨주고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만화, 영상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2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 뮤지션 육성을 위한 음악스튜디오 특성화 시설을 위한 ‘금정청소년미디어 Plus 센터’를 갖춘다. ‘음악’과 ‘소리’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공간이다.

유희선 청소년사업과장은 “아이들은 수련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면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를 꾸꾸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051)581-2070

천미희 기자

연등 만들며 ‘희망’ 키워요

소년소녀가장들 범어사서 템플스테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여는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범어사에 모였다.

1월 10~11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사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이다. ‘어둠과 위축돼 있었지만 집짓기 활동을 하는 것은 금빛이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성격대로 구김살 없는 웃음을 보이거나, 수줍어하며 낯선 사찰 문화를 익혀 가기 시작했다.

수련복을 입고 사찰예절교육, 사찰 안내를 받을 때만 해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던 아이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연등을 만들기 시작하자 연등 빛깔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분홍빛, 붉은 빛, 초록빛 연등을 빛는 아이들의 손놀림은 서늘했지만 한없이 연한 웃음을 빚으며 절은 어떤 곳인지, 연

등은 왜 만드는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않느냐는 의문이 문뜩문뜩 피어오른다. 알고 싶다. 그래서 차담을 나누는 시간에 스님에게 질문도 많이 했다.

아이들이 특히 재미있어 한 시간은 스님과 함께 한 율놀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한 율놀이에서 아이들은 율판위에 ‘희망’을 던져 읊었다. 환호성도 터지고, 인타가운 탄성도 질러가며 범어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둘째날인 11일에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 산행이 진행됐다. 험준한 산행이었지만 고당봉에 올라 내려다본 전경은 가슴을 확 열어주었다.

연수국장 해수 스님은 “누구나 금정산을 오르지만 고당봉을 오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정상에 올라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절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추억이 많고 앞으로 힘들 때마다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14일~15일 한차례 더 열리고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

활발한 봉사 올해도 다시 한번

적십자 불교봉사회 정기총회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는 1월 11일 정기총회를 갖고 2005년 활동 보고 및 2006년 계획을 세웠다(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훈훈한 얘기들이 많았다. 박추자 회장이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한 달여 투병 끝에 병석을 털고 일어나 자리를 함께 한 총회인이다. 지난 1년간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이 2781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봉사를 펼쳐온 뒤였기

부산 청년봉사 간담회 개최

포교 활성화 등 의견 나누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청년불교연대는 1월 21일 오후 5시 범어사 설립전에서 부산 지역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청년봉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산지역 청년봉사자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대모임인 청년불교연대는 이

때문이다.

정기총회에 함께 한 박추자 회장은 “지난 연말 내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더욱 알차게 봉사활동을 마무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 회원님들의 헌혈같은 봉사와 자비의 마음이 병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해 말 박추자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자 회원들이 교대로 간병을 도맡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적극 동참하며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병석에 누운 박 회장과 함께 나누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지구단위로 승격된 후 더욱 활발해진 적십자불교봉사회의 활동은 하나회(회장 심금조), 두리회(회장 김호선), 연등조(회장 채산연), 유심조(회장 황재연), 수련회(회장 권점)에 광명회(회장 천미희) 등 단위조직별로 성예원 목욕봉사, 헌혈캠페인,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를 펼쳐왔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인 상량정 봉사를 추가하는 한편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날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봉사자들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포교의 방향성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005년 1월 범어사 포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년불교연대의 가늠성을 가능하게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봉사 포교에 관심이 있는 이나 현재 부산지역 청년봉사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467-5241

천미희 기자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만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란,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궁극,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 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껴간 영험악 도량

천연기념물 223호 은행나무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껴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